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37호 【루계 제2767호】

주체112
(2023)년 9월
9일
토요일
음력 7월 2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주체적 해군무력강화의 새 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성대히 진행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건국력사에 일찌기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며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려정우에 주체적 해군무력의 급속한 발전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새로운 위력적실체가 출현하였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돐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리였다.

첫 수중핵공격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비약적으로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드팀없는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시위된 잠수함 진수식은 9월 6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리병철원수, 박정천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김명식해군대장 등 당과 정부, 군부 지도간부들의 참석하에 해군 동해함대 지휘관, 해병들, 봉대조선소의 전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들끓는 환희와 감격속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진수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하를 휘여잡으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 부국강병을 위한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위대한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시는 강철의 령장, 탁월한 인민의 령도자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병들이 장장 70여성상 가없이 넓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 싸워온 해군장병들의 고귀한 넋이 슴배여있고 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필승불패의 상징으로 빛나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서서히 게양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해군에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이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리병철원수가 전달하였다.

(2면으로 계속)

주체적해군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성대히 진행

(1면에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중함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이관증서를 해군 동해함대관하 해당 수중함전대장에게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진수식을 축하하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그의 혁명공업전사들이 숭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투쟁으로 출산한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은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공업의 가일층 도약을 결심하였으며 함선공업의 중흥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최중대과제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련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나가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전략전술적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축하연설을 마치시자 열화같이 분출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정이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오르며 진수식장을 진감하였다.

봉대잠수함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우리식 잠수함공업의 발전방향과 신형잠수함개발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해군무력강화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진수식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해군의 주요지휘관들, 잠수함공장 책임일군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리병철원수는 공장 지배인으로부터 진수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받고 진수를 명령하였다.

진수신호가 내리자 해군무력강화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의 순간을 체감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담아 꽃보라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 바다우에 떠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적국방건설정책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과 애국의 무진한 힘과 열정이 있어 공화국창건 75돐을 앞두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다시금 과시할수 있게 되였다고 거듭 평가하시고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 세기 함선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진짜배기애국자, 령해방위의 병기창을 지켜선 일선전투원의 값높은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9월 7일 시험항해를 위한 출항준비를 하고있는 전술핵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였다.

출항준비를 하고있는 부두에서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인도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가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의 영예의 군기와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을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김명식해군대장과 정치위원 김창국해군중장, 조선인민군 해군 동서해함대 지휘관들, 수중함전대의 군정지휘관들이 경모의 정을 안고 맞이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함의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수도, 늦출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혁명무력건설의 중핵적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해군무력의 첫 세대 영웅지휘관이였던 김군옥영웅의 이름을 아로새긴 잠수함의 지휘관, 해병들답게 전세대의 위대한 해병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준비에서도 혁명전쟁준비완성에서도 해군의 본보기, 전군의 모범이 되며 영웅해군의 새로운 신화를 계속 앞장에서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잠수함 전체 해병들과 함께 《김군옥영웅》함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군옥영웅》함의 전체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그 어떤 대적도 압승할 무적의 보검을 쥐여주시고 몸소 함에까지 오르시여 안전항해와 무훈을 기원해주시며 백전백승의 항로를 밝혀주신 위대한 령장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피줄기로 간직하고 바다의 결사대, 해군의 억센 주먹으로 용맹떨쳐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앞두고 진행된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식은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적해군무력의 강화발전사와 국가핵무력건설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선진해양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에로의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 의의깊은 계기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북중기계련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북중기계련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용원, 김재룡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조춘룡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여정, 최명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현지에서 기업소와 군수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중의 로동계급이 당의 국방, 경제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현 기술장비실태와 기술개건방향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년말까지 내세운 생산투쟁목표를 료해하시고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중기계련합기업소는 나라의 선박공업발전과 우리 해군무력을 강화하는데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임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선박공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혁명적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중기계련합기업소의 현대화와 나라의 선박공업발전방향에 대하여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요한 로선을 제시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당은 북중의 혁명적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고, 혁명의 년대들마다 투철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국방, 경제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해온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기업소의 당원들과 로동계급이 오늘날 우리 혁명의 중차대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당중앙의 중대결정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앙양된 투쟁열의로 무조건 화답해나서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요군수생산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기술현대화진행정형에 만족을 표시하시고 추가적인 생산능력조성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애국심을 간직하고 실력과 실천력으로 당의 국방발전정책을 받들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사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공화국은 무궁토록 빛을 뿌릴것이다

공화국은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만난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공화국인민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공화국창건 일흔다섯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자주독립국가, 인민의 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특기할 대사변이였으며 위대한 강국건설의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력사의 이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75년간 공화국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며 주체의 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라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완벽한 국가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의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해방후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전진하는 인민의 국가를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우시고 철저히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 공화국은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적본보기를 창조하며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으로 위용떨치고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로 세계지도우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심단결을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악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전대미문의 험로역경을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속에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타올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만년토대가 마련되였다.

참으로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력사상 처음보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은 강성부흥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그 존엄과 지위가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라 세계만방에 위용떨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며 공화국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부흥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민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강령들을 제시하시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시대를 안아오시였으며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펼치시였다.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함이라면 위험천만한 화선길에도 주저없이 나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의 로고에 의해 공화국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초강국으로,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굴함을 모르고 인민의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는 기적의 나라로 세인의 끝없는 찬탄을 모으고있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서 누리에 떨쳐지고있다.

공화국은 자주적대가 강하고 자기식의 발전궤도를 따라 융진하는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이다.

자주는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룬다.

장구한 기간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의 공격의 화살이 집중된 속에서 공화국이 자주적대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한 여기에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사소한 곡절과 탈선도 없이 승승장구해온 근본비결이 있다.

해마다 세계정치무대에서 일어난 중대사변들을 꼽을 때마다 공화국이 국제정치의 초점으로 되고있는것은 제국주의의 폭제와 전횡이 란무하는 현 세계에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정한 길로 끄떡없이 정정당당히 나아가고있기때문이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공화국이 세계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하며 자주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이다.

힘의 론리가 지배하는 현 세계에서 민족자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렬강들의 희생물로 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것이 랭혹한 현 시대의 실상이다.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킬 힘을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위대한 국가이다.

오늘 공화국의 전략적힘, 전쟁억제력은 지난 년대와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비상히 강화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련속적으로 등장한 주체병기들이 보여주듯이 공화국의 국가방위력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최강의 높이에 올라섰다.

세계언론들과 군사가들도 100% 국산화된 공화국의 첨단무기체계 개발속도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라지고있다고 한결같이 평하고 있다.

특히 뜻깊은 올해의 2월과 7월에 련이어 진행된 열병식은 그 발전속도와 질적, 량적측면에서 한해한해가 다르게 큼직큼직하게 장성하고있는 공화국무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세계에 뚜렷이 각인시켰다.

공화국은 오늘도 래일도 자기의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인것으로, 더욱더 불가역적인것으로 다져나갈것이며 가장 첨예하고 장기적인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새로운 전승사를 써나갈것이다.

공화국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뚜렷이 과시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빛을 뿌리고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장 철저히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세상이다.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누리고있으며 국가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국가의 모든 정책에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고 법제정과 집행이 철두철미 인민을 지키기 위한것으로 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공화국은 인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굳건히 지키고 꽃피워주는 인민의 참다운 보금자리이다.

인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떠말아안고 천신만고를 다하여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진모습은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리념에 집약적으로 담겨져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생활향상을 최중대사로 내세우고 큰 물과 태풍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인민들의 불행을 가시기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것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이다.

지금과 같은 때에 인민이 안겨살 문명의 별천지들과 따뜻한 보금자리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아이들에게 은정어린 젖제품과 새 교복, 새 학용품이 차례지고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유리하고 모든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일편단심 자기 령도자만을 믿고 만난시련을 헤쳐온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함에 국가의 모든 활동을 지향시켜나가는 공화국이 아니고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참다운 인민의 나라는 인민들의 오늘의 운명과 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맡아안고 꽃피워주는 국가이다.

공화국은 경제를 건설하여도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자원과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였고 무엇을 하나 일떠세워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일떠세워왔다.

어렵고 방대한 력사적과제들을 수행하면서도 언제나 먼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온것이 야말로 공화국의 부강조국건설 투쟁의 중요한 특징이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하는 전도양양한 국가이다.

공화국인민의 비상한 열의와 창조적힘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동력으로 되고있으며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고 나라와 어려움을 함께 하며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드는 자각적열성과 헌신적투쟁은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의 근본담보로 되고있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서로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미덕과 미풍이 차넘치고 협조와 단결의 힘에 의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 궁정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뚜렷이 과시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공화국의 부강번영과 양양한 미래가 있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시고 온 세상에 찬란히 빛을 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 절세위인들의 강국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을 김일성조선, 김정일조선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온 겨레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곧 조국이시며 그이가 계시여 공화국의 부강번영도, 인민들의 참된 삶과 행복도 있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야 한다.

누구나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가장 존엄있는 민족, 위대한 강국의 한 성원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어머니조국을 위해 애국의 땀방울을 바쳐야 한다.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조선민족의 피가 흐르는 민족의 일원이라면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절세위인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 승리의 한길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이고 운명이며 미래인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중앙사진전람회

중앙미술전시회

중앙산업미술전시회

우 표 전 시 회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예술소조원들의 음악회

녀맹중앙예술선전대와 평양시 녀맹예술소조원들의 공연

국기와 더불어 빛나는 승리의 화폭들

반만년과 75년

공화국이 걸어온 성스러운 75년사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 비해보면 한순간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75년사는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국가발전의 최전성기가 마련된 조국청사에 특기할 년대기, 반만년민족사의 모든 숙원이 실현된 위대한 년대기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존엄높은 국호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으로 어두운 이 행성에서 어디서나 보이고 그 누구나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는 자주강국의 표대, 정의와 진리의 상징, 진보적인류의 희망으로 되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위용떨친 영광의 75년

존엄, 오늘 이 두 글자는 강대한 우리 민족의 증서와 같고 세계에 비치는 조선의 얼굴과 같다.

돌이켜보면 민족사의 갈피에는 사대와 의존의 가슴아픈 력사도 새겨져있다.

고구려의 승전고 높이 울리던 민족이건만 그후 사대를 일삼으며 음풍영월로 세월을 보낸 봉건통치배들때문에 나라의 힘은 점점 쇠약해지고 민족의 존엄은 땅바닥에 떨어지였다.

제힘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큰 나라에 의존해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사대의존을 정책으로 실시하다나니 오늘은 이 나라 군대가 황궁을 지켜주고 래일은 또 다른 나라 군대가 황궁을 지켜주다가 궁문을 제멋대로 열어제끼고 들어온 사무라이들에 의해 황후가 참살당하는 참변까지 빚어졌으며 나중에는 나라까지 통채로 일제에게 빼앗기는 천하의 국치를 겪어야만 하였다.

그때의 조선은 그저 작았던 나라도 아니였고 그저 짓밟힌 나라도 아니였다. 이 행성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 자기의 존엄을 잃어버린 비참한 민족이였다.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은 조선은 렬강들의 웃음거리였고 조롱의 대상이였다.

오죽하면 한세기전 이 나라의 한 시인이 조선아 너는 왜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왜 남과 같이 굳세지를 못하였더냐고 절규하였겠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 민족은 자기의 주견과 결심에 따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인민으로, 무진막강한 절대적 힘을 가진 초강국의 인민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올라서서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리익에 맞게 세우고 관철해나가며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제 할 소리를 다하는 나라, 렬강중심의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고 정의와 진리, 평화를 수호해나가는 자주의 강국이 바로 오늘 국제사회에서 무시할수 없는 발언권을 가진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하기에 외국의 한 언론은 이렇게 평하였다.

《최근년간 지구를 뒤흔든 조선의 주동적이고 결단성있는 조치들은 이 나라야말로 그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는 자주적대가 강한 나라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난관이 중첩되는 조건에서도 조선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자주적력량을 선도해나가고있다는것은 리해하기 힘든 신비가 아닐수 없다.》

조선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비결, 자주강국으로서 세계의 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그 신비한 힘은 최강의 자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력은 위대한 자주정치의 산물이며 이 힘은 오늘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치게 하고있다.

어제날 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위협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어떤 강적도 넘보지 못하는 절대적인 초강력을 보유한 최강국으로 되여 지구의 축을 돌리고있다.

지난 전승 70돐경축 열병광장을 도도히 누벼나간 최정예 강군의 힘찬 발걸음에서 세계는 조선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다시한번 실감할수 있었다.

반만년민족사의 언제 어느때 이처럼 위대한 강국의 인민으로 그 명성을 만방에 떨친적이 있었던가.

그렇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특기할 대사변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운 75년

공화국이 걸어온 75년의 력사는 매 순간순간이, 그 하루하루가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펼쳐온 눈부신 나날들이였다.

수수천년 인민이 바라던 꿈과 리상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착취없고 압박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이룰수 없는 꿈이였다.

반만년민족사에서 인민은 어느때나 수난의 대명사였다.

한갓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노예의 처지에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빼앗기는것을 숙명으로 간주해야만 했던 불쌍한 수난자들이였다.

착취계급이 아무때나 밟고다닐수 있었던 땅이였다.

하기에 20세기초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조선을 돌아보고 간 유럽의 한 작가는 지게를 진 조선소년의 구슬픈 모습을 담은 조각상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조선사람의 표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은 하늘이 되였다.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존엄높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하고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대의원이 되고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고있다.

남들은 기차를 타고 달릴때 초신과 지게밖에 내놓을것이 없었던 인민이 전후 재더미우에서 기적의 천리마를 떠올렸고 남들이 수백년동안 걸어온 길을 단 14년동안에 꿰지르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속도전의 위력으로 20리날바다우에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웠다.

오늘은 또 건국이래 찾아볼수 없었던 파괴적인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치며 위대한 번영의 새시대를 떠올리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 로동이 곧 노래로, 기쁨으로 되고있다.

지난날 달속의 계수나무를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살고싶다는 소박한 소원을 노래에 담아보던 인민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 꿈을 현실로 꽃피우며 희한한 새 거리, 새 살림집의 주인이 되고있다.

창전거리의 45층살림집으로부터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살림집, 려명거리의 70층살림집을 거쳐 송화거리의 80층살림집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솟구치며 쉼없이 나래쳐오르는것은 인민의 행복만이 아닌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평범한 근로자들이 꿈을 꾸면 그것이 곧 새 문명, 새 생활에로 도도히 이어지는 격동의 세월속에 승마바람, 스키바람, 온천문화를 비롯한 새로운 시대어들이 태여나 인민의 웃음소리 하늘땅에 메아리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실지 조선에서 인민은 하늘로 떠받들리운다. 조선에서 인민은 창조의 주인일뿐 아니라 향유의 주인이다. 조선에 가보면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찾아볼수 있는데 그것은 인민이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에서 들을수 있다는것이다. 조선의 국호에도, 군대의 이름에도 인민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기관의 명칭에도, 인민문화궁전과 인민대학습당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들에도 인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는 나라, 인민의 꿈과 리상이 곧 현실로 되고 인민을 위한 거창한 사변들과 기적들이 끝없이 태여나는 위대한 인민의 나라!

바로 여기에 반만년민족사에 찬란히 빛나는 공화국의 성스러운 75년사가 가지는 세기적의의와 력사적총화가 있는것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온 민족사의 대행운

민족이 령도자를 잘 만나면 복을 누리고 부흥과 번영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르게 된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력사의 진리이다.

단군이래 우리 민족은 옳바른 령도자를 못만난탓에 사대와 굴종으로 시들다가 끝내 망국의 비운을 들쓰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수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에 한가지 사실자료가 있다.

바다건너 섬나라오랑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20세기초 우리 겨레는 백두산천지호반의 북쪽끝인 달문주변에 《종덕사》라는 99칸짜리 사찰을 세웠다.

이 사찰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줄 천출위인이 출현하게 해줄것을 기원하여 있지도 않는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드리군 하던 사찰이였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백두산마루나 천지호반에서 집을 짓는데 쓸만한 나무를 마련하자면 수십리 먼곳에 가야만 하고 천지에는 한해에도 8개월이상 눈과 얼음이 덮여있어 일을 할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 조건에서 천지호반에 99칸짜리 사찰을 건설한 이 하나의 사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탁월한 민족의 령수를 애타게 기다렸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에게 드디여 운명의 광명이 비쳐들었으니 그것은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위대한 태양, 우리 민족의 구세주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5천년 민족사의 모든 슬기와 용맹을 모아 지니신 하늘이 내신분이시였다.

그런분이시였기에 력사가 외면한 천대받고 버림받던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시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며 이 땅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바로 그날부터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장엄한 자기의 새 력사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 땅우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전설들을 끝없이 창조하며 세계에 빛을 뿌릴수 있었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만이 계승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신 또 한분의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거창한 실천으로 이 땅우에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 세계적인 대정치동란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루를 일떠세우시고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중엽에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전면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였다.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은 공화국을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떠올리고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였다.

하기에 적대국의 정치가들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하신 위인상에 대해 《북조선의 수뇌에서 정치를 주도하는 김정일장군, 김일성주석의 전모를 그대로 체현했다는것이 세계적인 중평이다. 자유세계와 단독으로 맞서는 품이 대단히 무섭고 강하고 손락이 드센 명장형임이 분명하다.》며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고 진보적인류는 끝없는 매혹과 흠모에 넘쳐 《김정일장군께서 이룩하신 공적은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거두지 못할 대공적이다. 지금까지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공적은 극상해야 한 나라, 한개 대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의 공적은 전 인류를 위한 세계사적인 공적이다.》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오늘 우리 민족이 모신 또 한분의 만고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고계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은 세월을 주름잡으며 세계의 초강국으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있다.

중국홍콩신문 《아시아타임스》는 《김정은령도자는 조선의 5천년 력사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적영웅, 애국자의 한사람으로 반드시 기록될것이다. 김정은령도자에 의해 조선에는 바야흐로 황금시대가 도래할것이다.》라고 하였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김정은령도자는 저 하늘에서 지구우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치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고 격조높이 전하였다.

우리 민족의 력사가 유구하여 어언 반만년을 헤아리지만 우리 민족의 존엄과 지위가 이처럼 온 누리에 떨쳐진적은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최강국으로 솟구치고 인민의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지상락원으로 전변되는 이 경이적인 현실은 그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한번 반만년민족사앞에, 시대앞에, 세계앞에 깨우치고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야 인민도 위대하고 나라도 천하제일강국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그렇다.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행운의 나라 조선은 반만년민족사와 더불어 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며 세계의 정상에 우뚝 올라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

◎ 잊지 못할 공화국창건의 나날에 ◎

국호에 깃든 이야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공화국창건을 준비하시면서 나라의 국호를 제정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나라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각방으로 시비질하였다. 그자들은 국호가 너무 길다느니,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국호를 《인민공화국》이라고 달든가 아니면 《인민》이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이름이야 우리가 주인이 되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지으면 되지 무엇때문에 남을 쳐다보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부 사람들이 국호에서 《인민》을 빼자든가 《민주주의》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 단계의 임무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조국이 분렬된 조건에서 혁명을 수행한다는것을 무시한데서 나오는 매우 그릇된 주장이라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나라의 국호를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와 근본목적을 다같이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국가가 전하는 사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를 창작하는 사업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부르시여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조국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창작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명곡의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였다. 주체36(1947)년 6월의 어느날 국가의 시청회가 진행되였다. 노래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란 시행부터 그 아래를 반복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고, 다시 한번 부르면 선률로 보아서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상 조화도 잘될뿐 아니라 노래도 한결 장중해지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긍지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오늘도 공화국인민은 국가를 들으며 가사의 주제와 내용, 작곡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깊이 새겨안고있다.

만장일치로 합의된 국기와 국장도안

주체37(1948)년 봄 어느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국기, 국장도안을 놓고 한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녀사께서는 장군님께서는 국기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당의 두리에 뭉친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그리고 우리 인민의 기백을 상징하는 표시와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별을 국기와 국장안에 그려넣는것을 놓치지 말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심의를 하루 앞둔 날 국기와 국장도안을 책상우에 펴놓으시고 밤깊도록 사색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장안에 그려넣은 용광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는데 용광로대신 전기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는것이 어떤가고 김정숙녀사께 물으시였다.

녀사께서는 이에 적극 찬성하시면서 발전소를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국장도안에 연필로 수풍발전소의 모형을 표시하시였다.

이렇게 창작된 국장과 국기도안은 심의성원들의 만장일치로 합의되였다.

본사기자

온 겨레가 안겨살 진정한 삶의 품

내 조국땅에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의 환희로운 아침이 밝았다.

공화국창건 75돐!

불러볼수록, 음미해볼수록 끝없는 자긍심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숭엄한 부름이다.

경사스러운 이 아침 사랑하는 조국땅을 더욱더 눈부시게 단장하며 떠오르는 아침해살을 바라보느라니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남다른 행운을 누리며 복받은 삶의 길을 걸어온 우리일가의 운명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나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력사에 또 한페지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길 위대한 조국의 일흔다섯번째 생일날을 맞으며 우리일가의 인생사와 더불어 새겨안은 진리를 다시한번 세상에 터치고저 한다.

할아버지가 안긴 품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려운형선생의 묘소에 보내신 화환

나의 할아버지는 우리 인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있는 몽양 려운형이다.

꿈속에서도 해빛이 그리워 자기의 호마저 몽양이라 불렀다는 나의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고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할아버지에 대해 쓴 책들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인생행로에 대해 잘 알게 되였다.

빛이 없는 만물의 소생에 대해 생각할수 없듯이 운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 참다운 인생에 대해 말할수 없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속절없이 내리는 비도 겨레의 피눈물이 되여 내리던 그 시기 강도 일제의 군화발에 짓밟혀 한점 빛이 없는 칠흑같은 어둠속에 잠겨 신음하던 삼천리강토였고 그래서 세상천지 둘러봐도 백의민족 불쌍토다며 가슴을 치던 우리 동포들이였다.

설음중의 제일 큰 설음은 나라잃은 망국노의 설음이여서 수난에 몸부림치던 그 시기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나라찾는 싸움에 떨쳐나섰던가.

나의 할아버지도 일찌기 봉건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고저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중의 한사람이였다.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은 웅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길가에 나서기만 해도 수많은 청중들이 자석처럼 묻어다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타고난 천성과도 같은 류창한 언변술에 나라잃은 설음을 담아 토로해보기도 하고 큰 나라에 기대를 걸고 독립청원서를 써서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제공산당과의 련계속에 당시 쏘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도 자주 만나 조선의 독립에 대해 모색하기도 하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각지로 동분서주하며 조선독립을 부르짖기도 했다. 나중에는 단신으로 현해탄을 건너가 《조선이 자주독립하는 길은 우주, 자연의 법칙이며 신이 명하는 민족의 권리이다.》고 웨치며 일본정계를 벌둥지 쑤셔놓듯하기도 하였고 《나는 외국인이지 식민지노예가 아니다.》고 하면서 왜왕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조선의 독립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했다.

할아버지는 한때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으로도 활약하였고 조선체육회를 뭇고 회장으로도 활동하였다. 할아버지가 조선체육회를 무은것은 단순히 체육에 대한 취미때문이 아니라 체육을 통해서라도 얼어든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의 넋을 일깨워주고싶었던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언제인가 서울운동장에서 진행된 우리 축구선수들과 중국 상해축구팀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우리 팀의 우승에 만족한 할아버지가 선수들을 데리고 어느 한 식당에 갔던적이 있다. 그런데 그 식당의 접대원들은 2층에 있는 일본인들에게만 부지런히 드나들고 우리 선수들에게는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격분하여 식당주인을 불러내서는 《당신도 조선사람인가, 나라가 있다면 이 선수들을 응당 국가적으로 표창하고 축하연을 베풀어주어야 하겠는데 나라를 빼앗겨 그렇게는 못할망정 떠받들어주어야 할 선수들을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일본인들만 접대해서야 되겠는가?》고 준절하게 꾸짖었다.

지금도 사람들이 나라없던 그 시절을 되새겨볼 때마다 가슴아프게 떠올리군 하는 《일장기말소사건》때에도 할아버지는 그 일이 너무도 내려가지 않아 나라가 없으니 휘날릴 기발조차 없다며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태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다고 한다.

정말이지 딛고 사는 땅은 있었어도 민족의 존엄은 없었고 하늘에 태양은 있었어도 사람들의 가슴가슴은 망국민의 슬픔으로 짙은 어둠에 싸여있었다.

바로 이런 때 보천보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을 안겨준 보천보의 거세찬 불길은 억압받던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재생의 밝은 빛이였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감격하여 친지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승을 축하했고 《조선중앙일보》에 특별보도로 이 소식을 게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택시를 세내여 보천보에 가서 불타버린 일제의 기관들을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하였으며 백두산에까지 올라가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만이 민족운명의 구원자이시고 전 조선의 유일한 령수이시라는 확신이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하기에 할아버지는 해방직후 미군강점으로 그처럼 복잡한 정치적혼란속에서도 허헌, 홍명희선생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함께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나섰으며 수령님께 하루속히 서울에 오시여 혼란된 정국을 바로잡아주실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올리고 그이를 만나뵈옵기 위하여 직접 38°선을 넘나들었다.

그 나날 할아버지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민족통일과 번영의 지름길이 있음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가 나아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식으로 건국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옷을 입을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조선식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식민주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하시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누구도 따를수 없는 담력과 배짱 그리고 한없이 고결하신 인품과 덕망앞에 할아버지는 끝없는 매혹과 존경심이 끓어넘치는것을 걷잡을 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조선에 대통운이 텄습니다. 우리 겨레가 안겨살 품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품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서울로 나간 할아버지는 청년들앞에서 격정에 넘쳐 연설하였다.

《내가 왜 **김일성**장군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따르는가. 그것은 **김일성**장군님이 백두산이 낳은 조선의 명장이시고 일제놈들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투쟁을 벌려 조국을 해방한 민족의 영웅이시기때문이다. **김일성**장군님이 내놓으신 건국로선이야말로 나의 신념이며 오직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고 조국이 나아갈 진로이다. **김일성**장군님의 품은 나 하나, 한가정만이 아닌 온 민족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길 위대한 태양의 품이다.》

이것은 한생 독립운동에 한몸바친 할아버지의 인생총화였으며 겨레앞에, 후대들앞에, 력사앞에 남긴 절절한 당부였다.

할아버지는 아쉽게도 공화국의 창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이 땅에 머지않아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 일떠서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했다.

할아버지는 미국놈들의 사촉을 받은 반동놈들의 총에 맞아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혼신의 힘을 모아 《조선…》이라고 불렀다.

나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도 부른 조선, 그 조선은 바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이였다고 생각한다.

그 품 떠나 못살아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영광의 자리에서 려연구고모가 《우리 형제 아홉남매중에 수령님의 품에 안긴 형제들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제명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올린적이 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을 떠나 우리 려씨일가의 오늘에 대해 어찌 생각할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여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나의 고모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친부모도 줄수 없는 따뜻한 어버이사랑이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의 저택에 도착한 자기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와 한가족이라고 하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다심하신 음성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길로 넓은 한품에 안아주시고 새 조국건설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학습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모르는것이 있으면 친부모의 심정으로 차근차근 일깨워도 주시며 부모들의 슬하를 멀리 떠나 외로움을 느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평생 잊을수 없다고 고모들은 종종 외우군 하였다.

그 나날 고모들은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사랑이 하도 뜨겁고 고마워 서울에서 싸우고있는 할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한다.

《…아버지, 저희 자매는 그동안 장군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응석을 부리면서 자랐습니다. 배움이 한없는 기쁨이 되고 삶이 한없는 자랑이 되는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장군님의 혜택으로 곧 류학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 나라로 가더라도 저희들은 결단코 장군님의 품, 조국의 품에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

이렇게 고모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저택에서 수개월동안 함께 살면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각별한 사랑과 정을 받아안았고 류학의 길을 떠났다.

그후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려연구고모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의장 등의 직무에서 사업하였고 그 기간에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당시), 중국, 뽈스까, 동도이췰란드(당시)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조국전선대표단 단장의 중임을 맡고 나가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떨치였다. 려원구고모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의 직무에서 사업하면서 값높은 삶을 누리였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나라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혁명의 꽃, 나라의 꽃으로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일하고있지만 나의 고모들은 이 나라의 녀성들 누구나 다 지닐수 없는 그런 영광의 단상에서 복받은 삶을 누리였다.

고모들뿐이 아니다. 전쟁때 할머니와 함께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나의 아버지도 절세위인들의 다심하고 변함없는 사랑속에 더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였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1978년이 다 저물어가던 어느날 아버지가 여느때없이 일찍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 흔들며 이제 인차 평양으로 떠나야 한다고 하는것이였다.

아직은 너무도 어린 나이였던 나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흥분했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그렇게 떠난 그 길이 아버지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오러 가는 영광의 길인줄은 후에야 알게 되였다.

당시로서는 나의 아버지도 나도, 우리 려씨일가가 모두 그 영광의 길이 어떻게 마련된것인지 알지 못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려씨일가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계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한날한시에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셨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에 떠받들리워 새해 신년사가 5분이나 늦어진 감동적인 일화가 이 세상에 태여났고 아버지와 고모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더없는 행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였다. 주시고 주시여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선생을 잊지 못하시듯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잊지 못하신다고, 더우기 그들중 두 딸은 광복직후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키워주었다고 하시며 그들이 일찌기 부모를 잃고 얼마나 외롭겠는가고, 이제라도 모두 평양에 모여서 살게 해야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우리 가정은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 심장속에 간직하고 사는 수도 평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였다.

그날 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불러앉히고 너희들은 우리 려씨일가를 잊지 못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된다고, 우리 려씨일가는 공화국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고 거듭거듭 당부하였다.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그후 아버지는 우당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으로 일하였으며 오늘은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고모들(려연구, 려원구)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다.

진정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일가에 돌려주시는 사랑은 그끝을 헤아릴수 없는 대해와도 같은것이였다.

지금도 나는 1991년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측 대표단 단장으로 서울에 간 려연구고모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고 《**고 몽양 려운형선생을 추모하여 김일성**》이라고 새겨진 댕기를 드리운 화환을 진정하며 목놓아 울던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 이미 수십년전에 떠나간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시며 화환을 보내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력사에 숭고한 인덕과 믿음의 화폭으로 빛나게 아로새겨진 잊지 못할 그날에 나의 고모는 수령님의 품으로 자기들을 떠밀어보내던 아버지가 다시 환생된듯 봉분의 흙을 더듬고더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보십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경모해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은정어린 화환을 보내주시였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 아버지를 통일의 선각자로, 애국지사로 불러주시고 오래 잊지 못해하고계시는 우리 수령님이 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오열을 터치고터치는 고모의 모습을 TV로 보며 나와 우리 가족모두가 뜨거운것을 흘리고흘리였다. 아니 온 겨레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감심하여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그날 고모가 서울에서 만난 려운형추모회 회장은 《묘소에 따님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준비를 하였지만 이렇게 **김일성**주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화환이, 그것도 생화가 와닿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어떻게 50년가까이 정사를 보시게 되였는가 하는 의문이 단번에 풀립니다.》라고 감동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서 나의 할아버지도 조국통일상수상자로 후세에 그 이름 전해지고있다.

오늘 나를 비롯한 우리 형제모두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려씨일가모두는 심중에 끓어넘치는 고마움을 담아 이렇게 터치고터친다.

《은혜로운 태양의 품, 그 품 떠나 우린 못삽니다!》

* *

해마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할 때면 우리 가정은 꼭꼭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는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아버지와 고모들만이 아닌 각이한 년대,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의 영생의 모습들을 보고 또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짐을 금할수 없다.

허담, 신상균, 박정호, 장정환, 최철웅, 김치구, 심창완, 신윤선, 림수만, 홍건의, 리현상, 송억만, 리진수, 최재하, 최동오, 백고산, 한덕수, 최덕신, 최홍희, 오익제, 류미영과 리인모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

태여난 곳, 걸어온 인생길은 서로 달라도 절세위인들의 품에 생의 닻을 내리여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지는 불멸의 모습들이다.

오늘도 후세들에게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와 공화국의 동지애의 력사를 전하며 영생의 언덕우에 서있는 렬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참으로 생각이 깊어지군 한다.

온 겨레를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시는 절세위인들을 대대로 높이 모시여 여기 신미리애국렬사릉만이 아니라 대성산혁명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비롯하여 영생의 언덕에서 값높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아니라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인민의 존엄높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어찌 이 땅에 사는 사람들뿐이랴.

해외동포들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따뜻이 불러주시며 더뜨겁게 품어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오늘 공화국은 초강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얼마전에는 우리가 만든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김군옥영웅》함이 태여나 주체적해군무력의 강화발전과 국가핵무력강화, 선진해양강국건설에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조차 《조선…》이라고 부르며 이 땅, 이 조선을 그토록 사랑한 나의 할아버지가 살아 오늘의 강대한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뜻깊은 공화국창건 75돐을 맞는 이 아침 나는 우리일가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온 세상을 향해 다시금 소리높이 웨친다.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은 온 겨레가 안겨살 진정한 삶의 품, 따사로운 보금자리이라고.

려인혁
(려운형의 손자)

려운형선생의 가족

시묶음

어머니조국을 노래합니다

받아다오 아이들의 웃음을

강 은 별

세상에서 제일 고운 꽃
제일 아름다운 선률을 골라
그대에게 드릴 기쁨 엮을수 있건만
조국이여, 나는 부디
아이들의 웃음 들려드리고싶어라

슬하의 천만자식 다 맡아안고
고생도 고심도 많은 어머니
바라노니 오늘만은 9월의 이날만은
그대의 큰 락인 아이들 웃음속에
만시름 푸시라 기뻐하시라

후대들 위해 세월에 마르지 않는
애정의 바다 가슴에 품은 어머니
아들딸들 꽃잎으로 띄워안고
밤이나 낮이나 고운 노래 불러주며
잠들지 않는 어머니
세상에 오직 그대뿐

아이들 좋아라 마시는 젖제품
모금모금 자식들 달게 넘길 때
이 나라 녀인들 목이 메이도록
가슴에 차오른 뜨거운것
력사의 어느 갈피에 온 나라 아이들
모두에게 젖줄기 물려준 나라 있더냐

말해보라, 사람들이여
철따라 차례지는 교복을 입고
아이들 춤추듯 달음쳐간 학교길
그 기쁨 위해 천을 끊어본이 있던가
학용품 그쯘한 《소나무》책가방에
어느 부모 품 한자루 넣어본적 있던가

힘겹다고 아이들 잊은적 없고
어렵다 뒤전에 밀어놓지 않는 품
그 품엔 마음껏 뛰놀 봄잔디 푸르러
찬바람 불어도 얼지 않는
사랑의 해살이 머리우에 따스해

비애를 삼켜 아이들 서러운 땅
부모들 눈에 피가 나는 땅이라면
오만공수라도 못키울 자식들
그런 지옥에 국기가 날린들 나라냐
눈물조차 씻고프지 않을 그 천조박아래
아이들은 내버려진 찬 얼음덩이

바다같은 사랑 하늘같은 정
끝없이 안겨주는 어머니
아, 이 땅에 아이들 행복의 웃음
천만구슬로 꽉 채우고싶어
마음쓰는 어머니 나의 조국이여

아이들 웃음은 그대의 재부며 힘
고생을 잊게 하는 무한한 행복
아이들아 웃음소리 더 크게 울려다오
조국이여, 받으시라 들으시라
세상에서 제일 고운 꽃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를

적구에서 품고산 나의 조국이여

리 철 준

9월의 아침해빛 눈부신 집 창가에
내 국기를 띄우노라니
퍼덕이는 기폭은 추억의 나래인듯
이 마음 실어가누나
저 멀리 흘러온 아득한 세월에로

조국과 떨어져 철창속에서 30여년
다만 그리움이고 사랑이였더냐
잊으면 그 순간에 숨줄 끊기고
버리면 원쑤가 짓밟는
국기는 나의 심장 나의 신념

지금도 눈감으면 떠오르누나
형리들 몰래 감방벽에 새기던 기발
못으로 새기다 못이 닳으면
손톱이 모지라지도록 그리던 기발
그 손톱마저 다스러져 피가 흐르면
붉은 피로 그리던 내 나라 기발

원쑤들 달려들어 먹물을 뿌려대기를
쇠조박으로 긁어대기를 그 얼마
공화국을 잊으라 송장이 안되려거든
퍼붓는 악형에 뼈는 부서졌어도
신념의 기발대는 꺾지 못했어라
이 마음의 기폭 찢을수 없었어라

철창속의 죄인이라 생각했다면
열백번도 더 눌렀을 전향도장
병약한 육신 치욕이라 여겼다면
한치 감방밖의 세상 부러웠을 이 몸
공화국기발 잊기엔 3초도 길었으리

무엇이였던가 조국의 기발은
넋과 피, 생과 아니 바꿀 사랑이였던가
아득히 먼곳에 있는 정의 세계
버릴것이란 하나도 없는
소중한 삶의 그 모든것 아니던가

수령님 주신 인간의 존엄이였고
감방벽에 새겨 수령께 드리는
나의 선서였고 맹세였다
0.75평 그 지옥속에서
0.001평도 내주지 않은 조국이였다

철창에서 흰기를 들지 않았기에
공화국기 당당히 날릴 권리를 안고
조국으로 수령님품으로 돌아왔거니

우리는 평양에 안겨삽니다

—한 해외동포가 부르는 노래—

김 영 일

기다려 기다려온 경사의 날입니다
어머니조국의 75돐생일입니다
류달리 눈부신 9월의 태양은
가고싶고 안기고싶은 평양
그리움의 그 하늘에서 솟은것입니까

평양의 모습과 달라도 평양거리인듯
경축의 물결 굽이쳐 흐릅니다
보십시오, 치마저고리 고운 녀인들
아이들 손에 나붓기는 국기
불어예는 바람도 평양바람인듯

다르지 않습니다 평양의 9월과
조국인민들 오르는 만수대
그 언덕에 경모의 꽃바다 넘칠 때
여기 길림에서도 도꼬의 조선회관에서도
동포들 삼가 꽃바구니 드리옵니다

이역의 우리 보고싶어 원수님
바다건너 구름너머 오신것은
아닙니까

환하신 존안 화면에서 뵈오니
그 품에 안긴것같아
아, 터뜨리는 눈물은 행복입니다

무대우에 펼쳐진 조국의 춤과 노래
이역에서도 흐리지 않은 민족의 얼
페부깊이 스며드는 조국의 향취입니다
어깨 들썩 어절씨구 춤바다 펼쳐
동포 사는 이 행성 어디나 명절입니다

그 누가 멀리 떨어져있으면
정도 멀어진다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조국과 더 가까와지는 9월
우리 마음에 그리운 어버이 오시고
이역땅 어디서나 날리는 내 나라 기발
조국의 숨결 심장마다 흘러넘칩니다

평양의 공기로 숨쉬고
조국의 노래를 부르며
원수님뜻으로 사는 해외공민

비전향의 30여년
몸은 비록 적구의 감방속에 있었어도
나는 조국의 품에 안겨 살았어라

국기는 하늘을 향해 게양된다 하지만
이 마음에 게양되던 기발
내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영원히 붙안고 살 람홍색기발
죽어 넋으로라도 품고살 나의 조국이여

뿌듯한 그 긍지로 남의 땅에 살아도
당당히 어깨펴고 가슴은 넓어집니다

아, 기쁨의 명절 환희의 9월
애국의 마음도 불같은 9월입니다
그리운 평양은 김정은원수님의 품
우리 동포들 언제나 평양을 안고삽니다
영원히 원수님품에 안겨살렵니다

아버지의 금별메달

김 태 룡

지금도 내 때없이 서군 하노라
우리 집 벽의 영웅메달앞에
이 메달 생각깊이 마주할 때면
마치 아버지를 마주하고 선듯
어쩌면 그 모습 생생히 비껴오는것이냐

때일찍 내곁을 떠나간 아버지
한마디 유언은 남기지 못했어도
누구나 남기지 못하는 금별
이 아들에게 무거이 얹어놓은
그 생은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던가

전선으로 뻗은 궤도우에 눈내리던 날
전시수송의 먼길 떠난 아버지
웃으며 떠나간 그 자국우에
돌아오는 자국 더는 찍히지 않던
그날의 눈 오늘도 가슴에 녹지를 않아

불비가 쏟아진다 주저했으랴
떠나며 돌아올 길을 생각했으랴
바란것 있다면 오직 그것은
설사 살아 돌아오지 못한대도
그길로 원쑤를 쳐이긴 승리가 오는것

아버지의 피가 배인 그 궤도우에
탈선없는 한생을 놓아야 할
나는 전시공로자영웅의 후손
심장을 바친 애국의 참된 삶에
애국의 마음도 불같은 9월입니다
그리운 평양은 김정은원수님의 품
우리 동포들 언제나 평양을 안고삽니다
영원히 원수님품에 안겨살렵니다

아버지의 금별메달

김 태 룡

심장 아닌 무엇으로 내 삶을 이으랴

바라보는 말없는 금별에서
애국의 넋을 꿋꿋이 이어가라!
아버지의 목소리 들려오지 않는다면
내 국기의 오각별을 잊고산다는것
이어가야 할 애국의 궤도에 녹이 쓴다는것

기꺼이 생을 바쳐 지켰고
생을 다해 받든 어머니조국이
못잊어 금별로 빛내여준 영웅들
간간이 추억으로 더듬으며 살라고
그들은 굳이 후손들 남긴것 아니거니

피를 넘겨받듯 절로 물려받는
유전이 아니다 애국은
그것은 전세대가 걸었던 뜻높은 길에
티끌 없이 남기는 량심의 자욱
그들의 넋으로 불같이 사는 인생

믿어다오, 아버지여 영웅세대여
그대들 참되게 살아 떠받든 조국
우리 후손들 무궁토록 빛내가려니
오늘도 나는 금별메달에서 아버지를 본다
오, 조국을 위해 높뛸 나의 심장을 본다

국가가 인민에게 안겨주는 선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스러운 75성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민사랑의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그 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이 새겨져있는가. 공화국의 철도전기화도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되여왔다.

주체37(1948)년 9월 15일이였다.

이날 저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집무실에서 내각책임일군들과 교통성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철도는 건국사업과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다음 첫 큰 공사로서 일부 구간의 철도를 전기화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력자원이 풍부하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라의 철도를 다 전기화할수 있습니다.》

확신에 넘치신 그이의 교시에 일군들 누구나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지 겨우 3년밖에 안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수십년 지어 수백년의 공업발전력사를 자랑하는 몇개 나라들에서나 볼수 있는 철도전기화를 창건을 선포한지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의 계획으로 선언하시니 그럴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질풍같이 달리고있는 전기기관차들을 상상해보면서도 일군들은 그것이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희망과 기대, 의혹이 가득 어려있는 일군들의 얼굴을 밝은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는 지금 형편에서는 철도전기화공사를 한꺼번에 다 할수 없기때문에 구배가 심하여 철도수송에 큰 지장을 주고있는 개고-고인간, 양덕-천성간부터 먼저 하자고 한다시며 그들의 의향을 물으시였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꽤 해낼수 있겠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장군님, 저는 철도전기화공사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올리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반대없다면 철도전기화공사를 시작해보자고 하시면서 힘있는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철도전기화공사는 공화국이 창건되여 처음으로 진행하는 중요건설대상이라는 의미에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의의가 대단히 큽니다. 이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되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여 인민들에게 베푸는 첫 선물로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었다.

우리 공화국이 인민들에게 베푸는 첫 선물!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신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물론 지금 기술과 경험, 자재를 비롯한 모든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체로 철도를 전기화한다는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반드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철도전기화를 하여야 하며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철도운수를 급속히 복구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경제를 부흥발전시켜 공화국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더욱 강화할수 있다. …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확고한 의지가 차넘치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개고-고인간, 양덕-천성간 철도전기화공사를 오는 12월말까지 완공함으로써 주권을 잡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공화국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고 선언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일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로 수령님의 결심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과 함께 전국의 기술자들과 자재설비들을 이 공사에 집중시키도록 친히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공화국의 첫 철도전기화공사는 국가가 태여나 인민들에게 베푼 첫 선물로 되였다.

그때부터 공화국인민이 국가로부터 받아안은 배려는 그 얼마였던가.

전쟁승리를 위하여 한푼의 자금이 귀중한 어려운 전시환경에서도 내각결정으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그후에는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세금제도도 완전히 철폐되였다. 또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공급해주는것이 영원한 국책으로 선포되는 숭고한 화폭이 펼쳐졌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도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지난 10여년사이에만도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련포와 중평의 대규모온실농장들, 창전거리와 려명거리, 송화거리, 경루동, 화성거리 등이 련이어 일떠서고 삼지연시가 산간도시의 전형,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되였다.

그런가 하면 농촌진흥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정녕 75년에 이르는 공화국의 력사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의 품속에서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삶을 누려온 력사이다.

김 광 진

수필

우리 선수들이 펼쳐든 국기를 보며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손기정선수의 사진

며칠전 지하철도에서 있은 일이다.

전동차를 기다리며 역홈에서 신문을 들여다보던 나는 우리 나라 태권도선수들이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를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게 되였다.

기사와 함께 우승컵을 높이 추켜들고 시상대에 올라 람홍색공화국기를 긍지높이 펼쳐든 태권도선수들의 사진도 있었다.

비록 그 선수들중에 아는 사람은 없어도 이역땅에서 공화국기를 보란듯이 펼쳐든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곁에 있다면 누구보다 축하의 꽃다발을 먼저 안겨주고 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신문을 보던 사람들도 저저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국기를 펼쳐든 우리 선수들의 사진을 보느라니 문득 긍지와 희열에 넘쳐있는 태권도선수들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되는 한 체육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1936년 8월 제11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에 마라손선수로 참가하여 단연 1위를 쟁취했건만 조국이라 부를 제 나라가 없어 남의 나라 기발을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던 식민지체육인청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댈 국호와 국기가 없어 그는 1등의 영예를 쟁취하고도 절통함과 치욕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니, 온 민족이 망국민의 설음을 더욱 뼈아프게 새겨안았다.

하기에 당시 신문들은 마라손경기에서 우승하고 월계관을 쓴 그의 사진을 게재할 때 그의 가슴에 달린 침략자의 기발을 지우고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어느한 월간지는 그의 다리부분사진만을 싣고 《우리의 아들 손기정의 다리》라고 비통한 설명문을 달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체육인들은 공화국의 상징인 람홍색기발을 온 세계가 다 보게 떳떳하게 펼쳐들고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1위를 쟁취한 희열만이 아닌 존엄높고 강대한 공화국의 체육인이라는 긍지와 행복이 한껏 어리여있다.

그렇다!

조국이 없으면 하늘이 있어도 띄울 제 나라 국기도 없다.

조국이 강대하고 위대하면 국기도 빛나는것이고 그 국기아래 인민들의 삶도 행복하고 값높은것이다.

그러나 조국을 잃게 되면 국기도 없고 인민들은 망국노의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

우리 선수들이 펼쳐든 국기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람홍색공화국기발이야말로 세계만방에 우뚝 솟아 빛나는 내 조국의 존엄의 상징, 온 세상이 우러르는 조선의 위상이라고.

이 존엄높은 국기가 어머니조국의 탄생일인 뜻깊은 9월 9일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경의를 받으며 조국의 하늘가에 창공높이 거세차게 퍼덕이고있다.

눈부신 태양의 빛발아래 찬란히 빛나는 람홍색국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며 우리 인민은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람홍색국기여,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무궁토록 나붓기라.

김 혜 정

ㄱ-1632ㄷ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